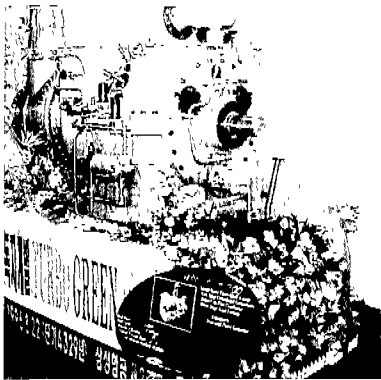


### 삼성항공, 산업용 가스터빈 엔진 독자개발성공

삼성항공은 국내 최초로 산업용 가스터빈엔진 독자개발에 성공하고, 오는 '98년부터 상용화하기로 했다. 삼성항공이 이번에 개발한 엔진은 출력 1,200kw의 터보샤프트형 엔진으로 대형건물이나 공장, 병원 등의 발전설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공업기반기술사업으로 추진된 동 엔진개발사업은 삼성항공의 주관하에 항공우주연구소, 서울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원, 기계연구원등이 엔진개발에 참여했으며 1,000℃이상 고온과 수만 RPM에도 견디는 소재를 천지산업, 한국로스트웍스, 한일단조등 소재업체들이 생산하였고 기어박스나 엔진제어를 위해 화천기어와 동서제어등이 참여하여 5년간 총 474억원이 투입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이다.

삼성항공은 8월22일 창원공장에



삼성항공이 독자개발한 산업용 가스터빈 엔진모습

서 통상산업부 추준석 차관보와 이대원 삼성항공부회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진 점화식을 갖고 그동안의 노고를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추 차관보는 이날 축사에서 "삼성항공의 가스터빈 개발성공은 기계공업분야에 있어 자신감을 안겨준 쾌거"라며 "기계공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산업용 가스터빈의 시제 개발 성공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시제엔진의 상품화를 위한 개발에 착수하여 '98년부터 상용화된 발전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을 독자개발하거나 최소한 대등한 위치에서의 국제공동개발에 참여 2010년에는 세계 5대 엔진메이커로 도약할 계획이다.

### 보잉사, 록웰사 흡수하여 사업확장

미 보잉(Boeing)사는 록웰(Rockwell)의 항공 우주와 방위 사업 부문을 32억불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인수로 인해 동사의 방산과 우주 산업의 규모를 1/3 이상 확장시키며 연 매출은 90억불에 달하게 되었다.

인수되는 록웰사의 부문으로는 우주왕복선과 위성을 제조하는 우주시스템, 로켓 모터 제조의 로켓다인(Rocketdyne), 전력 미사일을 제조하는 자동 제어 & 미사일(Autonetics & Missiles) 부문, B-1B 폭격기로 보잉사의 자회사 '보잉 노스아메리카'로

재탄생하게 된다.

보잉사는 NASA가 우주 왕복선의 운용 업체로 지정한 록히드 마틴사와의 합작 사업에 대한 록웰의 50% 지분을 얻게 되었다.

보잉사에 인수되지 않은 록웰사의 부문들은 새로운 록웰을 구성하여 전자 부문에 주력할 것이며 매출은 약 1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잉사의 회장 필 콘디트는 '이번에 인수된 부문들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며 이번 합병은 보잉사가 완전 통합적인 항공 우주 업체가 되고자 하는 20년 목표의 달성을 가속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세계 최신기종 총출동... 서울에어쇼'96 추진사항 발표

프랑스의 라팔(Rafale)과 러시아의 수호이 Su-35 등 세계최신의 전투기를 오는 10월이면 서울하늘에서 볼 수 있다. 서울에어쇼'96 공동운영본부는 지난 8월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행사추진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동운영본부는 오는 10월 21일 부터 27일까지 7일간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서울에어쇼'96에 현재까지 21개국에서 159개업체가 참가신청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운영본부측은 '당초 우수업체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들이 참여를 약속해와 그간의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고 말하고 당초 유치목표인 200개업체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공군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서울에어쇼'96에는 라팔이나 Su-35이외에 프랑스의 비지니스기 팔콘(Falcon)9000EX, 에어버스의 A340, 보잉사의 B777등이 실물로 전시되며 시범비행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곡예비행부문에서는 해외민간 3개팀과 한국공군 1개팀이 참여한다. 미국과 호주팀은 피츠(Pitts)기종으로 하늘의 깜짝쇼를 연출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팀은 수호이 프로펠러기종, 한국공군의 블랙이글팀은 A-37기로 멋진 공중쇼를 선보일 계획이다.

## BAe, 62억불 상당의 영국 방위계약 체결

브리티쉬에어로스페이스(BAe)사는 영국 국방부와 약 40억파운드(62억달러) 상당의 해상초계기 및 2가지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동사는 그동안 경쟁해왔던 미국의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를 물리치고 신 Nimrod2000 기종 21대를 영국 공군에 납품키로 했다. 이는 Nimrod MR2기종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또 BAe와 프랑스의 Lagardere사의 Matra unit는 8억파운드 상당의 새로운 순항미사일을 납품키로 했는데 이 계약에는 미국의 맥도널더글라스(MD),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사 등이 입찰에 응했었다. 이와함께 GEC-Marconi Dynamics사는 7억 파운드 상당의 신 Anti-armor시스템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BAe 관계자는 이번 순항미사일계

약에 프랑스와 영국의 합작사인 Matra-British Aerospace가 미국을 누르고 선정됨으로써 유럽 국방산업의 협조체제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Nimrod 계약으로 롤스로이스사는 BR710엔진, Racal Electronics사는 레이더 장비, GE영국지사와 보잉사의 합작사는 미션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



Nimrod 2000: BAe는 새로 제작된 기체의 25년의 수명을 보장할 것이다